

## 國文本 實記 〈임진록〉, 〈임즈록〉으로 본 修巖 柳袞

張 庚 男\*

###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국문본 實記 著作의 의미
- III. 국문본 實記로 본 柳袞의 爲人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수암 유진은 임진왜란 체험과 옥고 체험을 〈임진록〉과 〈임즈록〉을 통해 기록했다. 두 작품의 저작 시기는 재 변증이 요구되는 바, 〈임진록〉은 1610년에 쓰기 시작하여 1614년 이전에는 완성되었고, 〈임즈록〉은 1612년에 이루어졌으며, 두 일기는 1614년 경에 합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암이 자신의 체험을 국문으로 쓴 것은 다분히 여성 독자를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삶을 알릴 필요에 의해서 국문으로 제작하였다. 두 편의 작품에 보이는 문학적 표현은 여성 독자를 의식한 글쓰기인데, 이는 당시 소설문학이 융성하게 된 배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진록〉과 〈임즈록〉을 통해서 수암의 위인을 읽어낼 수가 있다. 수암은 현실의 부조리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현실 비판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도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특히 〈임즈록〉을 통해서 수암의 형제애가 남달랐음을 볼 수 있었다. 두 실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암의 위인됨은 남다른 인간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주제어

수암, 유진, 임진록, 임즈록, 임진왜란, 해서역옥사건, 실기

## I. 머리말

임병 양란이 우리 문학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두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문학사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산문문학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 일 것이다. 전란 체험을 바탕으로 한 實記의 등장도 한 몫을 했다. 체험의 기록인 實記는 많은 작품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실기는 임진왜란을 체험한 작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과 체험의 과정에서 느낀 정서를 記, 錄과 같은 형식을 이용해 기록·표현하여 후대인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비허구적 문학이다.<sup>1)</sup> 李舜臣의 『亂中日記』, 李庭菴의 『西征日錄』, 趙慶男의 『亂中雜錄』, 趙靖의 『壬亂日記』, 李魯의 『龍蛇日記』, 李擢英의 『征蠻錄』, 柳成龍의 『懲毖錄』, 鄭慶雲의 『孤臺日錄』,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慶得의 『萬死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權斗文의 『虎口錄』, 吳希文의 『瑣尾錄』, 柳軫의 〈임진록〉, 鄭榮邦의 〈壬辰遭變事蹟〉 등이 이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修巖 柳軫도 실기 작품을 남겼다. 수암은 조선조의 巨儒 柳成龍의 막내아들이다. 수암은 열한 살 때 임진왜란을 맞아 피란 체험을 하였고, 서른 한 살 때는 逆獄 사건에 휘말려 獄事도 겪었다. 두

1)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34쪽.

번의 특별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임진록〉과 〈임즈록〉이다. 이 두 작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국문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국문문학의 등장은 문학사 전환의 계기가 된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국문소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문본 실기의 등장은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국문문학의 주요 향유층은 여성이다. 실기 작자의 독특한 체험을 여성 독자들에게 읽히려는 의도로 국문본 실기는 등장한 것이며, 이는 국문소설의 향유와 일정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문본 실기 두 편은 수암 유진의 인물됨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도 국문으로 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가치가 있다. 특히 두 실기는 수암이 본격적인 宦路에 오르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벼슬하기 이전의 수암의 위인됨은 국문본 실기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암의 실기 작품에 대한 연구는 이 작품을 소개한 洪在然에 의해서 해제 수준의 글이 전부이나,<sup>2)</sup> 필자에 의해서 〈임진록〉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sup>3)</sup> 〈임즈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두 실기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실기의 저작 의의와 주요 내용, 그리고 실기 작품으로 본 수암 유진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洪在然, 「壬辰錄」, 『國文學研究』 7, 曉星女大 國文科, 1983./ 홍재휴, 「임자록」, 『국문학연구』 8, 효성여대 국문과, 1984./ 홍재휴, 「修巖 柳衫과 壬辰錄 考」,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1.

3) 張庚男, 「壬亂 實記文學 임진록 研究」, 『崇實語文』 10, 송실어문연구회, 1993.

## II. 국문본 實記 著作의 의미

〈임진록〉과 〈임즈록〉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洪在佺가 고증한 바 있다. 그런데 국문본 〈임진록〉의 저작 시기는 좀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홍재휴는 〈임진록〉을 해제한 글에서 “그러므로 「임즈록」은 「임진록」과 같이 그의 晩年인 53歲 頃に 지으신 것이라 볼 수 있다”<sup>4)</sup>고 했으나, 최근의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諺書」인 音字本 「임진록」이 이루어진 것은 일찍어도 意字本일 「日錄」 「二冊」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題日錄後」를 쓰게 된 甲寅 곧 光海 6년(1614) 뒤의 일이라 할 수 있다”<sup>5)</sup>고 하였다. 즉 수암의 나이 53세인 인조 12년(1634)에서 광해 6년(1614) 뒤의 일로 수정한 것이다. 필자도 수암의 만년인 53세 때로 받아들였는데,<sup>6)</sup> 再考가 필요하다.

〈임진록〉의 저작 시기를 再 辨證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 二十一年癸巳先生十二歲留嘉山○閏十二月自關西還侍文忠公于京(寓墨寺洞受經史等書○後先生以諺書追記避亂首末示家間婦女李公在寬齋傳焉)  
四十年壬子先生三十一歲二月丙戌聞海西逆獄起……○七月到家○九月葬洗馬公先生痛仲兄之歿……作壬子錄記被逮顛末冬挈家移寓於玉淵精舍(『修巖先生文集』, 「年譜」)

㉡ 日錄者何日之所爲 必書二冊所以備觀戒而資改耳 然則曷自庚戌始 前乎此者歲遠而不可詳而舊篋有庚戌春日記因而錄之而 其後事亦多出於追記……甲寅季夏上辭書(『修巖先生文集』, 권3, 跋, 「題日錄後」)

4) 홍재휴, 「壬辰錄」, 『국문학연구』 7, 효성여대 국문과, 1983, 87쪽.

5) 홍재휴, 「수암 유진과 임진록 고」, 앞의 논문, 197쪽

6) 줄고, 앞의 논문, 273쪽.

㉔ 그 시절의 부모야 동성이야 써나 그림던 모습과 만나 반갑던 정을  
엇지 다 니르리오 이제는 부모 업스시고 동성들 다 죽고 나 혼자 스  
라셔 병이 드리 아모 제 죽을 줄 모르니 나 곳 니르지 아니면 비록  
즈식이라도 그리 신고호여 죽다가 사라는 줄 모를 거시라 일가 사름  
이나 예아기 삼아 보게 호여 기록호노라 (<임진록>)<sup>7)</sup>

㉕ 임진연 스설과 훈디 써 즈식들을 주어 제 아비 평성 설위호던 줄을  
알게 호노라 (<임즈록>)

㉔의 年譜를 통해, 임진왜란 때의 피란 수말은 체험 당시가 아니라  
후에 언서로 추기하였음을 밝혔으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피란 체  
험 기록은 <임진록>인데, 이는 국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  
즈록>은 31세 때인 1612년 9월, 형의 장례 후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㉕의 「제일록후」의 기록 가운데 ‘2책’이라는 것은 <임진록>과 <임즈  
록>을 칭하는 것임을, ‘庚戌’에 쓰기 시작한 것은 경술년이 1610년이므로  
임자년(1612)의 투옥 체험기인 <임즈록>이 아니라 <임진록>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임진록>은 1610년경에 쓰기 시작하여 이 글이 쓰여진  
1614년 이전에는 완성된 것이다.

㉔와 ㉕의 발문을 통해 <임진록>과 <임즈록>은 자신의 쓰라린 체험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  
란 체험의 기록과 투옥 체험의 기록인 <임진록>과 <임즈록>은 함께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㉔의 기록에 보이는 李在寬은 수암의 여덟째 사위인데, 이 인물  
은 <임즈록>과도 관련이 있다. <壬子日錄>의 다음 기록을 보자.

7) 인용문 가운데 ‘동성’은 현대어의 아우란 뜻과는 달리 동기 곧 친형제를 말한 가운  
데도 형을 일컫는 것이라 함.(홍재휴, 앞의 논문, 197쪽.)

按先生此錄有眞諺二本 而眞本止此 李公在寬有翻諺一通 詳悉可攷 今截取以附于  
下 以見先生素患行患之始終云爾 (〈壬子日錄〉)

이 기록은 한문본 〈임자일록〉의 3월 15일 일기 후에 부기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옥 체험기인 임자년 기록은 국문본과 한문본 두 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기록 가운데 이재관은 국문본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 문집을 만들면서 한문본에 누락된 3월 15일 후의 기록을 국문본을 보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앞의 ㉔ 기록에 의하면 이재관은 〈임진록〉도 베껴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수암이 쓴 두 종의 일기는 딸들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이재관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즈록〉이 국문본과 한문본 두 종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임진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임진록〉은 딸들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진록〉은 1610년에 쓰기 시작하여 1614년 이전에는 완성되었고, 〈임즈록〉은 1612년에 이루어졌으며, 두 일기는 1614년경에 합철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기의 저작 목적은 자식들에게 자신의辛苦한 체험을 알릴 목적이었다. 수암은 아들 둘과 딸 여덟을 두었다. 맏아들 千之는 1616년에 태어났다. 만일 두 일기가 1614년경에 합철되어 완성되었다면 아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이로써 수암이 두 일기를 국문본으로 만든 이유를 밝힐 수 있다. 당시 사대부가의 문자 생활로 미루어 보아 국문본은 여성 독자를 위한 것이었다. 국문본 일기의 작성은 딸들에게 읽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본 〈임자일록〉에는 없고 국문본 〈임즈록〉에만 기록된 내용 가운데 3월 4일의 일기는 옥중에 견문한 열녀의 행적이 전부이다. 열녀의 기록을 굳이 삽입한 이유는 딸들을 교화할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글이 집안의 여성을 중심으로 전사된 것은 수암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우천(愚川) 유 평창택(柳平昌宅) 세세(世世) 귀중지물이니 장구(長久) 장구하여 유전(遺傳) 천추(千秋)하라. 이 책은 우리 선세(先世) 유적(遺籍)이니 자손이 극히 공경 중대(重大)하는 바리니 본전(本典)이 많이 상한 것을 내 해포 두었다가 더 상하여 버리니 불초 죄 중하여 여러 해 경영하여 번서(翻書)하였으나 본디 단필에 풍파 환난에 정신이 몽황(朦恍)하고 칠십지년에 안력(眼力)이 희미하니 성자(成字) 아니 되어 불성(不成) 모양이나 내 성력(誠力)이 극진하니 대대 종부(宗婦)들은 사적(斯籍)의 존중함과 필주(筆主)의 가득한 정성을 생각하여 아끼고 아껴 전지자손(傳之子孫) 만만세지(萬萬世之) 무궁하라.

시세(是歲) 기유(己酉)의 춘에 평창의 종고모 봉대(鳳垓) 강택(姜宅)은 수회(愁懷) 심요(心擾) 중 추필서(醜筆書)하노라. 우리 모녀의 글씨라 줄필(拙筆) 해괴(駭怪)하니 통분(痛憤) 참괴(慙愧)하나 고어에 왈 유자 불사요 유문 불후라 하니 비록 흥필이나 이책에 머물러 내 우리집 딸로 세상에 있던 줄 후인이 알게 하노라.<sup>8)</sup>

위 인용문은 현전하는 『壬辰錄』<sup>9)</sup>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책은 우리 先世의 유적이니 본전이 많이 상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상하여 버리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필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기록자는 평창의 종고모 봉대 강택이라 했으니 이는 강원도 평창 고을살이를 한 柳厚祚의 從古母인 鳳垓 姜遇欽에게 출가한 사람이다. 봉대 강택 모녀가 필사를 했고, 우리집 딸로 세상에 존재했음을 알리려 한다고 했다. 이렇게 『壬辰錄』은 집안의 여성을 중심으로 전사되어 전해졌다.

8) 홍재휴, 『역주 임진록』, 영남대출판부, 2000. 75쪽.(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만 표기한다.)

9) 『壬辰錄』은 <임진록>, <임즈록>, <수암선성형장>을 한데 묶어 전하는 책을 말한다.

〈임진록〉과 〈임즈록〉의 발문에 기록된 저작 동기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려는 데 있었다. 壬辰倭亂이나 逆獄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또는 그 체험이 너무나도 서러운 경험이었기에 자신의 기억 속에만 남겨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십수년이 지난 기억을 떠올리거나 수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수암은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여 후손에게 보이고자 했다.

역사는 종종 개인적인 기억에 기반을 둔다. 역사는 재구성된 기억의 형태를 띤다. 역사가들이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증언을 모아서 그 기억의 입증을 시도한 이후에 재구성된 기억이다. 역사는 계속 기억에 매여 있다.<sup>10)</sup> 수암의 실기는 자신의 체험 기억에 의존해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개인사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전달하려는 역사 기록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기록은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 곳곳에 섞여 있는 회고의 말은 정황에 대한 수암의 개인적 감회를 담고 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려는 기록 이상의 의미인 것이다. 수암의 실기가 비록 개인적인 체험의 고백담 성격을 띠고 있으나, 단순히 전달하고 설명하는 기록물 이상의 문학적 감염력을 갖고 있다. 역사 기록이 주지 못하는 정감적인 호소, 인간성의 발견, 감동적인 정황서술, 진실 추구<sup>11)</sup> 등을 갖추고 있어 문학 작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격은 〈임진록〉의 구조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국문본 실기는 일기 형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임진록〉은 날짜를 명기하지 않으면서도 피란 체험을 시간 전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가족간의 이별로 시작해 모든 가

10) 로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39쪽.

11) 黃滄江,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13쪽.

족이 해후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유기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에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

서사문학은 ‘서술자’와 ‘일정한 사건을 갖춘 이야기’이며, ‘어떤 인물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겪어 나아가는 일련의 사건’을 내용으로 삼는다.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이 서사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주제로 모아지는 연속적 사건을 줄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결국 서사의 본질은 사건이나 일의 경과를 표현하는 것인데, 사건이나 일은 주체인 인물을 필요로 하며,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줄거리를 이루도록 이야기하는 서술자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건이 실제의 것이거나 허구의 것이거나 무관하다는 점이다. 결국 ‘서사’는 話者(서술자)와 聽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기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진록〉의 발문에 밝힌 “이야기 삼아 보게 하여”라고 한 부분이다. 수암은 자신의 임란 체험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경험 기록을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암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서술했으니, 이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한 서사물로 여길 수 있게 해준다.<sup>12)</sup>

표현면에서는 단순하게 사실을 전달하려는 서술 이상의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 점이 수암 실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각 작품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보자.

가) 또 하루는 아니 새어서 밥을 먹고 숨으러 갈 때 내가 마침 밥을 더 먹으므로 모두 먼저 가며 따라오라고 하였다. 젓어미 나를 따라와 비탈

12) 장경남, 앞의 책, 46-48쪽.

에 함께 숨었더니 날이 샌 후에 보니 왜가 진을 친 집이 바로 곁이요. 왜놈이 좌우로 (베탈에) 북 나들 듯 다니니 어떤 도적은 곁으로 쓸며 가되 모르더라. 비탈 위에서 고향지르고 한도로 술새풀 끝을 치니 바람에 아득히 올랐다가 옷에 떨어졌다. 아무도 없이 다만 돌이 숨어서 무섭고 근심됨이 그지없었다. 가까스로 해를 지우고 돌이 산을 넘어 재로 가다가 재에 막 오르자 왜놈이 올라오다가 마주쳤다. 절벽이 서너 길이나 넘는데 위에서는 절벽이 있는 줄을 몰랐으므로 허공을 디디어 내려 떨어졌다.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벽 위를 보면 왜가 내려다보게 될 것 같으면 나를 잡으려고 할 것이라 여겨 마음을 졸이었으나 마침내 왜가 아니 오더라.(100쪽)

나) 해가 거의 다 질 미시(未時)가 되어 그제 서야 나를 '잡아들이라' 하 시니 칼이 극히 무겁고 족쇄를 발에 씌워서 걸음을 걷지 못하니 물 나장(拿將)이 칼을 잡아 뒤를 밀며 들췌 문에 들어가니 사람이 좌우로 서 있는 것이 마치 성을 쌓은 듯하여 겨우 길을 통할 수 있었다. 백보 남짓 가서 마치 막 문에 다다르니 안에서 나장이 마주 나와 끄덩이를 꺼두르며 공중에 마구 띄웠다가 전(殿) 아래 풀리니 그렇게 할 때 좌우에서는 쉬쉬 하는 소리가 많았다. 막 풀리며 나장 하나가 형문(刑問) 치는 매를 네모나게 깎아 메고 나무 상장(喪杖)만한 것을 한 아름 안고 와 뒤로 머리를 넘기고 치니 그 소리가 가장 놀라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무릎을 꿇려 다짐을 받으실 새 땅을 보니 펴빛이요 비린내가 코에 치키니 참으로 말지 못할 지경이었다. 위로께서通天冠(通天冠)을 쓰시고 어탑(御榻)에 앉았으니 좌우로 백관이 나뉘어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뜰 아래는 선전관(宣傳官)과 금군(禁軍)이 화동개(筒兒)와 한도를 차고 많이 열립(列立)하여 위 의(威儀)가 참으로 엄숙하였다.(172쪽)

가)는 〈임진록〉, 나)는 〈임궐록〉의 한 장면이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을 보는 듯하게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다. 수암의 이러한 표현력은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소설의 한 장면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는 이 글의 독자로 상정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당시 여성들의 독서물 가운데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연 소설작품이다. 소설적 흥미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거니와 표현상에 있어서 자세한 상황 서술과 장면 묘사도 한 몫을 한다.

수암의 실기는 다분히 독자를 의식한 문학적 글쓰기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수암의 실기가 쓰여진 17세기에는 다양한 국문소설이 등장했고, 한문소설은 국문으로 번역되어 향유되었다. 국문본의 주요 독자층은 여성이 차지하게 된다. 사대부가에서는 소설을 교화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 소설문학은 융성기를 맞이한 셈이다. 수암의 국문본 실기는 당시 넓게 퍼진 여성의 독서 욕망에 기대어 제작된 것이다. 국문으로 번역된 〈슈암선싱항장〉이 〈임진록〉, 〈임즈록〉과 같이 묶여서 전승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수암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실기와 더불어 수암의 생애를 여성 독자들, 특히 가문의 딸과 며느리들에게 읽힐 목적을 지녔던 것이다. 여성들에게 널리 읽혔을 소설문학의 독서 경향과 같은 배경이다.

### Ⅲ. 국문본 實記로 본 柳衫의 爲人

#### 1. 〈임진록〉<sup>13)</sup>

〈임진록〉은 유진이 11세 때인 선조 25년(1592) 4월에 왜란을 당하여 서울에서 피란길에 올라 풍양, 양주, 영평, 포천, 가평, 양근 등지를 배회하고, 강원도의 화천, 금화 등지와 평안도의 평양 근교에 이르기까지

13) 본 항은 필자의 「壬亂 實記文學 〈임진록〉 研究」(『崇實語文』 10, 숭실어문연구회, 1993.)에서 일부분을 요약 재서술한 것이다.

올라갔다. 은산, 영유, 안주, 가산 등지를 거쳐 황해도 수안을 지나 다시 서울로 되돌아오기까지의 11개월 동안 겪은 피란 생활의 정황과 체험한 이야기를 생생히 기록한 실기이다.

이 기록은 수암이 체험한 당시의 기록이 아닌 몇 십 년이 지난 후에 회고로 이루어졌다. 수암이 임란을 만나 피란을 시작하여 가족과의 이별을 하는 데서 기록이 시작되어 다시 온 가족이 재회하는 것에서 끝맺고 있다. 임진왜란은 7년 동안(1592-1598) 진행되었으나 수암이 체험한 기록은 11개월에 불과하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세계만을 그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곧, <임진록>은 작자가 경험한 대상만을 소재로 하여 그 소재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택되어 쓰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파편적인 소재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임진록> 저술 동기 중의 하나는 자신이 겪은 임진왜란의 아픔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곳곳에서는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란을 가는 도중 곳곳에 쌓여 있는 시체에 대한 목격담은 물론 飢餓로 인해 고통 받는 장면 서술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산이 깊어 도적이 올 근심은 없었으나 먹을 것이 떨어지니 설사 팔 것이 있어도 사갈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소를 가져가서 한수에게 ‘잡으라’ 하였다. 소금도 장도 없이 다만 새옹을 가져갔으나 많은 권속(眷屬)이므로 이루 구어내지 못하였다. 우명불에 구어내서 때를 예우다가 그것마저 그쳐지니 또 도토리를 주어 새옹에 그것을 삶았으나 다 삶지 못하여 껍질을 벗겨 불에 구워 먹었다. 쓴 줄은 모르겠으나 먹은 후에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하여 한나절 때를 지나도 일어나지 못하겠더라.(101쪽)

먹을 것이 없어 소를 잡아먹었으나 그마저도 떨어지니 도토리를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처럼 서술한 것이다. 기아문제와 함께 심각한

한 것이 질병 문제였다. 수암은 질병이 유행하면서 겪는 괴로움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전란 중 가족 간의 이별을 겪는 모습은 전란으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 중의 가장 큰 고통이다. 이러한 모습은 수암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전란으로 부모형제의 생사를 모르면서 떠돌아다니는 아이의 모습이나 자식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까지를 작자는 놓치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전란 중 최악의 참상은 왜적에게 당한 피해이다. 왜적들의 살륙, 납치 등 온갖 악행과 잔인성에 대한 서술도 여러 곳에서 보인다. 특히 부녀자들의 납치와 겁탈은 임진왜란 기간 중 왜적에 의해 공공연히 행해진 것인바, 수암 또한 이러한 참혹상을 놓치지 않고 서술하였다. 수암은 실기를 통해 임란 기간 중의 참상을 다양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전란의 참상을 떠올린 것은 그 아픔을 되새기고 한편으로는 후대를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겪은 아픔에 못지않게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의 전 기간을 통해 관료들의 부패와 背任의 폐단이 전쟁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튿날 영평(永平)으로 가니 그 때에 할머니는 현등사에 평안히 계셨고, 조종(朝宗)에 왜(倭)가 있다는 말은 진실로 왜가 아니라 가평원(加平員)이 벼슬하려고 (거짓 공적을 올려) 피란하는 사람을 함부로 베어 왜라 하고 나라에 보고하니 그 말이 와전되어 난 것을 거기에 속아 할머니 계신 곳을 그리 가까이 두고도 가지 못하니 어찌 괴로움이 아니리오.(81쪽)

지방장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악덕을 행하는 모습과 官軍들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전란을 수습할 의무가 있는 관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부정을 일삼는 현실을 작가는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附倭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고 있다.

한 왜놈이 우리가 앉아 있는 곁으로 지나가며 종긋이 서서 오줌을 누니 양쪽 귀에 튀어 오더라. 다른 왜가 무어라 지껄이니까 오줌누던 왜가 이르되, “저기는 큰 길이니 의심 없으리라.” 하니 말이 우리나라 말이니 우리나라 사람이 왜에게 들어붙어 길이나 가리키노라 함께 다니는가 싶더라. (86쪽)

평소 조선의 체제에서 소외되어 왔거나, 이에 순응키 어려웠거나, 조선에 반감을 가졌거나, 무엇인가 변화를 기대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왜란의 격동기를 맞아 모든 사회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목도하면서 비로소 기회가 온 것으로 알아, 감히 조선사회의 금기를 깨뜨리고 반사회적 활동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다.<sup>14)</sup> 이들 중의 하나가 바로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들은 제각기의 처지와 이해에 따라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였을 것이나 결국은 조선 사회 나름의 병리적 구조의 부산물의 일종인 것이다. 수암은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난민들의 행패나 각박한 민심도 전란으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현상이다.

고개를 넘어가니 과연 풀막 둘이 있고 남녀 노약병자(老弱病者)가 아울러 거의 스무나문이나 있더라.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 물으되,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므로 판관 실내는 손을 비비며 이르되, “..... 그 놈이 이르되, “양반이라 하니 더욱 좋도다. 왜가 고을 안에 있어서

14) 黃涇江, 앞의 책, 210쪽.

양반을 잡아 주면 값이 작을까? 빨리 나가거라. 더디 나가면 매어 고을로 보내리라.”(90쪽)

전란의 와중에서 드러나는 난민들의 행패나 각박한 민심의 동향을 통하여 수암은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였다. 게다가 조선조 사회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인 양반과 상민의 계층의식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상을 비판한 것이다. 강상의 윤리에 철저했던 수암의 입장에서 이같은 사회 현상은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수암은 피란 체험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피란 중 따뜻한 정을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내 기록하고 있다.

형님이 부득이 하여 관관께 여쭙어 짐을 차리니 박춘이 말려도 듣지 않을 줄 알고 자기 말에 짐을 실어 하룻길을 따라 와 보내고 가니 그 관곡함이 이렇듯 하더라.(82쪽)

그 종이 내 말을 자세히 사되어 이삭 주으러 갔다가 버선 잃고 베버선으로 맞추어 신계 된 까닭을 이르니 눈물을 짓고, “말을 해서 말이더냐 가엾구나. 그 발 내어 보소.” 버선을 보자고 하니 그 계집종이 내 발을 잡아내려 하므로, 나는 손으로 뿌리치니 그 실내 웃고 자기 아들 키 날만한 이를 불러 이르되, “네 벗이니 네 옷을 벗어주리로다.” 하고, 입은 야청 중치막을 벗기어 나를 입히고 팔과 쌀을 한 말씩 주며 이르되, “원(員)도 아니 계시며 얼마 되지 않거니와, 오래 있게 되거든 다시 와 다녀가거라.” 하시므로, 나는 절하고 나왔다.(102쪽)

피란 중 갖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베푸는 모습은 인간성의 발현인 것이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인간성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수암은 임란의 참상을 고발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베푸는 인간의 참모습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낸 것이다.

〈임진록〉을 통해 수암은 국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잘못된 현실에 대해 비판할 줄 아는 현실 비판자다운 면모와 함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을 옹호하는 博愛者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하겠다.

## 2. 〈임꺾록〉

수암은 1612년, 31세의 나이에 逆謀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임자년(1612) 2월에 金直哉 등이 모반한 海西逆獄이 일어나자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입고 2월 25일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典獄에 들어 옥고를 치루는 가운데 諸臣이 꾀를 올려 병이 중함을 아뢰었으므로 칼을 풀고 구류하게 되었으며, 李漢陰 등이 왕의 자문에 공이 무죄하다고 아뢰어 보석의 특명이 내려 옥문 밖에서 지내다가 仲兄 洗馬公 褫이 옥바라지하던 중에 별세하자 6월 22일에 석방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자년의 투옥 체험은 2년 뒤인 1614년에 기록되었는데, 한문본과 국문본 두 종이 있다. 한문본은 〈壬子日錄〉이라 題하였고, 국문본은 〈임꺾록〉이라 하였다. 〈임자일록〉은 임자년 정월에서 시작하여 6월 22일까지의 총 23일의 일기이고,<sup>15)</sup> 〈임꺾록〉은 임자년 2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20일의 일기인데,<sup>16)</sup> 〈임자일록〉의 5월 이후의 일기는 〈임꺾록〉을 한문 번역한 것이다.<sup>17)</sup>

15) 임자년(1612) 1월 1일, 2월 21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월 1일, 2일, 3일, 5일, 6일, 7일, 9일, 10일, 11일, 12일, 15일, 5월 6일, 10일, 17일, 26일, 6월 22일.

16) 임자년(1612) 2월 21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월 1일, 3일, 4일, 5일, 6일, 7일, 9일, 10일, 11일, 5월 6일, 10일, 17일, 26일, 6월 22일.

한문본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날의 일기를 기록하였으나, 국문본에는 날짜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일기를 쓴 날도 있다. 또 국문본에만 기록된 일기가 있는가 하면(3월 4일), 한문본에만 기록된 일기도(1월 1일, 3월 2일, 3월 12일, 3월 15일) 있다.<sup>17)</sup>

〈임즈록〉은 중형 柳穉이 황해도에서 일어난 역모 사건을 전하는 일기부터 시작하여 2월 25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옥고를 치르다가 6월 22일 석방되어 7월 초에 집으로 돌아와 중형의 장례를 치른 9월 29일의 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7월 초와 9월 29일의 일기는 따로 나누지 않고 6월 22일의 일기에 이어서 기록하였다.

〈임즈록〉과 같이 투옥 체험을 기록한 일기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다. 작자는 일기 말미에 밝혀 놓았듯이 “제 아버 평생 서러워 하던 까닭을 알게”하려는 의도로 이 일기가 쓰였다고 했다. 평생 서러운 일은 억울한 옥살이일 수 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삶을 마감한 중형의 일을 서러워한 것일 수도 있다. 일기는 중형이 황해도의 역적 사건을 전한 것에서 시작해서 중형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결국 자신의 옥살이에 대한 원망과 함께 중형과의 兄弟愛가 이 일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다.

중형 단은 수암과 압송되는 과정을 함께 할 정도로 형제애가 깊었다.

형님이 전부터 파리하고 허약하시더니 이곳에 이르러서는 위돈(委頓)하여 능히 몸을 가누지 못하여 말을 타고 내림에 반드시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하니 내 울며 말하되 “비록 따라 간다고 한들 무엇이 유익하리오. 원컨대 잠간 쉬어 조용히 오셔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씨(仲氏)는 눈물을 흘리고

17) 3월 15일 일기 끝 부분에 “按先生此錄有眞諺二本 而眞本止此 李公在寬有翻諺一通 詳悉可攷 今截取以附于下 以見先生素患行患之始終云爾”(《壬子日錄》)라 하였다.

18) 이 글은 국문본 실기를 대상으로 하기에 〈임즈록〉을 텍스트로 한다.

발을 굴리며 말하되, “나로 하여금 네가 옥에 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시니, 형제 서로 붙들고 우니(152쪽)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형은 수암이 하옥되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걱정하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 수암이 下獄되자 옥문 바깥에 집을 얻어 옥바라지를 자청하기까지 한다. 수암이 병으로 인해 보석을 받았으나 옥사가 늦어지자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간다.

옥사가 점점 늦추어져 사대부가 연달아 구속되니 상주 정우복(鄭愚伏)과 영천 김백암(金栢岩)께서도 이어 잡혀 가시니 형님이 전후(前後)에 분주하여 마음이 짓달려 아침에 음식도 힘써 아니 자시고 나가 다니시며 기별을 듣보고 행여 못살려 낼까 하시어 우시었다. 따라서 알음이 닿는 데면 가지 아니 하는 곳이 없고 소경에게 문복(問卜)을 다 다니시니 매양 나가면 어둡게야 오시므로 나는 매일 말리며 음식이나 힘써 권하였으나 원시(原是) 기약(氣弱)하고 비위(脾胃)가 남만 못하더니 변을 만나 용심(用心)하시기를 각별히 더 하시니 그로 해서 나날이 정신이 어지러워 가므로 나는 내 일을 잊어버리고 형님을 민망히 여겨 사퇴기를 “이제는 보방(保放)을 하였으니 살아나지 아니하겠습니까. 형님이 먼저 내려 가소서” 자주 권하오니 곧이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말만 곧 하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니 자주 사퇴지도 못하였다.(167쪽)

獄事가 늦어지고 사대부가 연이어 잡혀가는 상황에 이르자 행여 동생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몸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손 쓸 곳을 찾아 분주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소경에게 問卜을 다닐 정도로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급기야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자 수암은 형의 죽음에 다음과 같이 애달파한다.

날이 새게 되면 옥 밖으로 오고 저물게가 되면 그곳에 가 모시기를 사나흘이나 하다가 병이 점점 중하시므로 죄도 생각지 못하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기를 옛새 만인 오월 미시(未時)에 없애시니 그 때에 한음(漢陰)이 영의정이 되어 계시어 가지가지 약을 보내시며 내국(內局) 의원(醫員) 여럿을 보내어 구하려 하시고 그 밖의 친절한 벗들도 모두 구하고자 하니 어떻게든 살리어 낼까 하여 모든 의원의 앞에서 백 번이나 절하고 꿇어 울며 손을 비비어 “살려 주소서”하고 스승 소경을 청하여 해보지 않는 일이 없이 다 하였으나 내 평생 적악(積惡)하여 하늘과 귀신께 죄를 얻어 마침내 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차마 말로서 다 하리오. 옛 사람이 똥 맛으로 죽고 삶을 안다 하였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서울의 절친한 벗들이 모두 수의를 바치고 무명을 모아 치상(治喪)을 극진히 하니 그 사이 사실이 무진(無盡)하게 많지 마는 이제 생각하여도 목이 메어 말하지 못하겠도다.(169쪽)

형의 병세가 심해지자 수암은 자신이 죄인의 처지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형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발을 하였다. 급기야 혼미한 상태가 되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는 생각에 소경을 청하는 등 갖은 애를 썼으나 끝내 살려내지 못하고 말았다. 형의 죽음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말하지 못할 정도라는 서술은 형님에 대한 극진한 애정의 표현이다. 자신 때문에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수암에 대한 애정은 형뿐만이 아니었다. 만누님 또한 수암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을 베풀었다. “만누님은 또 계집아이 종을 보내어 죽을 가져와 나를 먹이며 줄곧 문 밖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하여 주었다.”(160쪽)는 서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누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수암의 형제애는 이렇게 남달랐다. 수암은 옥중 체험을 회상하여 기록하는 중에 특별히 기억에 떠올린 것은 형제간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남다른 형제애는 수암이 窟路에 나아가 善政을 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逆謀者로 몰려 체포되고, 서울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겪는 고난이나

옥중에 겪은 고통도 이 일기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고향에서 학업에만 정진하던 자신에게 역모자라는 혐의가 씌워져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고뇌와 번민에 찬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 죄인(罪人) 두 자에 달아오르는 가슴이 칼로 썬 듯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말하되, “내 비록 어리고 망령(妄靈)되어 남같지 못하와 내 나이 서른이로되 한 일도 보람직한 일이 없으니 만일 이것을 허물 삼으면 죽더라도 감심(甘心)하려니와 이런 이름이 몸에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일이니 황천(皇天)아 원컨대 밝혀 보소서”(147쪽)

서울로 압송하는 길에 의금부도사는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죄인 유아무개는 병으로 앓고 있으니 도로에서 죽을까 싶어 부득이 치료하면서 올라가겠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죄인’이라 지칭한 것을 보고 수암은 극도의 치욕감을 느껴 이같이 탄식한 것이다. 압송 과정 내내 죄인 취급당하는 것에 수암은 번민을 했다.

스무 옛날 새벽에 두 사촌형과 성지(性之)를 이별하고 떠나니 죽으며 살 염려가 마음에 요란하니 참으로 진정하기 어렵더라. 퇴찰이(兎遷)에 다다라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되, ‘내 진실로 죄 없으면 죽음이 무엇이 어려우리오.’ 하는 의사가 일시에 평안한 듯하나 저물도록 혹 동(動)할 적도 있으며 혹 아니 동할 적도 있으니 동할 때가 열 번에 한 두 번은 되고 밤이면 열 번에 일어덥 번은 되어 매양 남이 다 잘 때면 홀로 근심하며 탄식하고 베개를 만지며 혼자 말하고 심할 때면 눈물을 감지(感知) 못하니 이렇듯 한 뒤에야 살기를 바라기란 하늘에 오르기와 같더라.(150쪽)

죄가 없으면 죽음이 무엇이 두려우랴 하면서 자신을 다그쳐 평온하게 마음을 먹지만 문득문득 생각할라치면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에 찬 모습이다. 사정

이 이러하자 죽을 결심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에 하회(河回)에서 떠날 때 만일 죽게 되면 손수 죽으려하여 진초(초피나무열매, 극약)를 종을 시켜 얻으려 하였더니 문경(聞慶)에 와서 두어 흡이나 얻었으므로 밤에 옷을 따고 넣고, 남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151쪽)

수암은 하회를 출발할 때부터 자결을 작심했었다. 극약으로 쓰이는 진초를 구했으나 문경에 와서나 얻을 수 있었고, 이를 감추어 두고 있다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역모자라는 혐의를 받고 치욕스럽게 사느니 보다 죽음을 택하기로 한 수암의 결의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 내용은 한문본에는 없고 국문본에만 기록되었다. 자식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이 일기가 쓰여진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결백과 절개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옥된 후에 겪는 옥살이의 고통 또한 보통 인간으로서는 참기 힘든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 수암은 체포되어 압송되어 가는 과정과 옥살이 중에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 특히나 큰 칼을 쓰고 지내야만 하는 입장이었기에 그 고통은 더 컸다. “나장이 나를 꿰리고 쇠 근 무게의 칼을 쓰이고 항쇄·족쇄 등 가지가지 연장을 갖추니 두 발이 한 데 닿아 걸음을 못 걸을까 싶고 칼이 두 어깨를 짓누르니 어깨가 부서지는 듯하였다.(171)”라는 기록에서도 보듯이 고통스런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다.

막 꿰리며 나장(拿將) 하나가 형문(刑問) 치는 매를 네모나게 깎아 메고 나무 상장(喪杖)만한 것을 한 아름 안고 와 뒤로 머리를 넘기고 치니 그 소리가 가장 놀라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무릎을 꿰려 다짐을 받으실 새 땅을 보니 핏빛이요 비린내가 코에 치키니 참으로 말지 못할 지경이었다.(172쪽)

이 글은 국문을 받는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다. 매를 맞아 흘린 피가 땅을 적시고 그 냄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수암은 옥살이 중에 겪은 고통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한스러운 처지를 자식들에게 알려려고 했던 것이다.

수암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기록하는 가운데에도 주변에서 받은 온정을,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온정을 기록하였다. 압송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받은 내용도 기록한 것이다.

안보역(安堡驛)에서 자게 되었는데 연풍(延豐) 관비(官婢)가 녹두죽을 가져와서 위로하기를, “사지 못할까 근심 마르소서. 하늘이 그리 무지(無知)하겠나이까” 하였다.(151쪽)

용인(龍仁) 고을 앞에 이르니 주인 원(員) 윤시용(尹晞勇)이란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와 봄으로 나는 사례하여 이르기를, “한번 죽고 사는 데서 사권정을 안다 하거니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누가 미칠까” 윤가(尹哥) 말하기를, “전에 서로 알던 사람이 문밖으로 지나가는데 어찌 차마 그저 있리오. 또 죽은 아내를 생각하고 더욱 서러워하노라” 하였다(152쪽)

안보역에 이르자 연풍 관비가 녹두죽을 가져와 위로하였고, 용인에서는 윤시용이라는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다. 이렇게 도중에서 만난 사람들의 온정을 기록하였는가 하면 압송 과정에 함께 한 의금부도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문경에 다다르니 집(襟)이와 침(襟)이가 버드내에서 울며 길에 나와 맞이하고 누님도 문틈으로 바라보며 울므로 나는 눈물을 참고 지나와서 말을 내려 객사에 와 앉으니 …… 도사(都事)는 나로 하여금 “들어가 누님을 만나 보라” 하되 나도 또한 보고픈 마음이 거지 없었으나 사세사(斯世事)가 같지

아니하여 비편(非便)할 듯하였으므로 이에 말하되, “비록 만나본들 무엇이 유익하리오. 보고 마음이 언짢으면 아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드디어 옛글을 읊어 이르되, “병드신 누님이 병상(病床)에 누었으니 참으로 죽으며 살기가 멀다함을 알리로다” 이렇듯 슬퍼하며 탄식하고 떠났다. (150- 151쪽)

의금부 도사는 수암을 압송하는 내내 수암의 인물됨에 감탄하여, 문경에서는 누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었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압송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옥중에서 받은 온정도 기록하였는바, 대표적인 인물로 邊克明과 兪知 吳謙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변극명은 아버지 서애에게 은혜를 입은 인물로 옥중에서 수암이 옥졸에게 킁박을 받자 도움을 주었다. 또 오겸은 수암이 옥에 들면서부터 위로해 주던 인물인데,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곧 풀려날 것을 예견해 주기도 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주변에서는 온정을 베풀었다. 수암은 이들의 온정을 기억해 내 일기에 기록한 것이다. 따뜻한 인간애에 대한 옹호는 〈임진록〉에서도 보았던 대로 수암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이다.

옥중 체험기인 〈임즈록〉을 통해 수암은 남다른 형재애를 갖춘 따뜻한 인간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옥중체험에 대한 고난을 기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보인 형이나 주변 인물들의 온정을 기술하면서 수암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은 물론 따뜻한 인간애의 소유자임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 IV. 맺음말

修巖 柳稔은 자신의 독특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임진록>과 <임즈록>이 그것으로 이 두 작품은 단순한 체험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그것인데, 지금까지 이 작품이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체험기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두 작품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엄격한 고증을 통해 저작 시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임진록>은 1610년에 쓰기 시작하여 1614년 이전에는 완성되었고, <임즈록>은 1612년에 이루어졌으며, 두 일기는 1614년경에 합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암이 자신의 체험을 국문으로 쓴 의미는 당대 독서 경향과 결부지어 설명하였다. 국문본 독서물은 다분히 여성 독자를 위한 것이었다. 수암도 자신의 딸들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삶을 알릴 필요에 의해서 국문으로 제작하였다. 여성을 의식한 국문본의 제작은 당시 소설문학이 서서히 융성하게 된 배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국문본 실기의 등장은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임진록>은 열한 살 때의 임진왜란 체험을 수십 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임즈록>은 서른한 살에 겪은 옥사를 몇 년 뒤의 기억으로 기록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을 통해 기록한 내용이지만 글의 내용을 통해서 수암의 위인됨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 수암은 현실의 부조리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 현실 비판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도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특히 <임즈록>을 통해서 수암의 형제애가 남달랐음을 볼 수 있었다. 두 실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암의 위인은 남다른 인간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 實記는 국문으로 쓰여진 체험 기록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개인 체험의 기록을 넘어서 문학적인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역사와 문학의 양면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수암의 기록정신과 문학적 소양이다. 당대에 널리 읽혔을 것으로 보이는 소설문학에 대한 독서 경향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특히 소설문학의 주요 독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이 실기가 국문으로 쓰여졌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여성의 독서 경험을 염두에 두고 국문본 실기가 지어진 것이며, 이 실기는 여성 중심으로 향유된 것이다. 현재까지 수암 유진의 『壬辰錄』이 전승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修巖先生文集』, 수암선생문집간행소, 1980.  
 홍재휴, 『역주 임진록』, 영남대출판부, 2000.
- 張庚男, 「壬亂 實記文學 〈임진록〉 研究」, 『崇實語文』 10, 송실어문연구회, 1993. 269-289쪽.
- 張庚男,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 洪在然, 「修巖 柳衫과 壬辰錄 考」,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1. 193-212쪽.
- 黃淇江,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一志社, 1992.
- 로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Abstract

Suam(修巖) Yoo Jin(柳軫) in <Imjinrok> and <Imjarok>,  
Documentary Literatures of Korean Manuscripts Version

Jang, Kyung-Nam

Yoo Jin recorded his experience during Imjin Waeran(Japanese Invasions of Korea) and hard time in prison through <Imjinrok> and <Imjarok>. Writing of <Imjinrok> was started in 1610 and was completed before 1614, and <Imjarok> was written in 1612. It is assumed that both works were merged around 1614.

Korean manuscript of experience by Yoo Jin was for women readers. It was written as a Korean manuscript to inform his daughters about his regretful life. Literary expression on two works was writing for women reader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is writing had the same way of doing things as the background of novel literature being prosperous.

Yoo Jin as a great man was shown through <Imjinrok> and <Imjarok>. Yoo Jin was not only a criticizer of irrationality of reality but also showed various humanly aspects. In particular, <Imjarok> showed that his brotherly affection was special. Yoo Jin as a great man in two documentary literatures is that he has great philanthropy.

Key Word

Yoo Jin, *Imjinrok*, *Imjarok*, Imjin Waeran(Japanese Invasions of Korea), documentary literatures

▪ 논문투고일 : 2011.12.10 심사완료일 : 2012.2.4 게재결정일 : 2012.2.10